



지난 27일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과 임직원들이 창립 68주년을 기념해 최초의 본점이 위치한 명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양증권

“韓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증권사 될 것”

한양증권, 창립 68주년 기념

한양증권이 창립 68주년을 맞이했다.

한양증권은 27일 창립 68주년을 맞아 임재택 대표이사과 임직원 25명과 함께 최초의 본점 등을 거친 명동에서 이를 기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역사적 장소의 방문을 통해 설립자의 창업이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부심과 소속감을 드높이자는 취지다. 명동에는 한양증권이 처음 설립된 장소와 최초 본점 등이 위치해 있다.

1956년 한양증권은 대한민국 9호 증권사로 시장에 입성했다. 한국경제의 토대가 형성되기 이전이자, 앞날을 장담할 수 없던 시기였다. 한양증권의 뿌리에는 한양학원을 설립한 백남 김연준 박사의 교육보국 기치가 존재한다. 한양증권은 창립 이후 안정적인 성장

과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처음의 사명과 지배구조를 68년째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 임 대표는 “세월의 격을 넘어 한양증권이 명동에서 창업의 깃발을 높이 세울 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낀다”며 “6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도전과 역경, 시련을 이겨낸 뒤에 얻어진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자 영광의 트로피와도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민족, 사회의 가치를 드높이는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한양이 되자는 설립자님의 큰 뜻을 받들어 한양증권을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증권사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오전에는 한양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창립 68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배재규 “반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투운용 사장)

2024 ACE 반도체 기자간담회 “AI 시대 도래에 큰 도약기 앞둬”

“반도체 산업은 챗GPT 이후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라 또 한번 큰 도약기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도 중요성이 크게 증가해 가격 등락과 관계 없이 반드시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다.”

배재규 한국투자자산운용 사장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소재 콘래드호텔에서 ‘2024 ACE 반도체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심층 논의와 투자 방향, 전략 등 반도체를 둘러싼 최근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비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반도체 장비

등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배 사장은 “4개 섹터의 대표주인 삼성전자, 엔비디아, TSMC, ASML을 20%씩 편입했다”며 “글로벌반도체TOP4ETF”를 소개했다. 해당 상장지수펀드(ETF)는 글로벌 반도체 시총 5위부터 10위 종목을 합쳐 20%씩 담은 상품이다. 한투운용은 앞으로 반도체 ETF를 4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초연설을 맡은 칩워(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Chris Miller) 교수도 “반도체 산업은 수년 간의 연구개발과 막대한 자본 투자를 통해 해자를 구축한 소수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진입 장벽이 높아질수록 상위 기업으로의 집중 구도가 더욱 공고화된다”며 “반도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점 기업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키움증권, 기업가치 제고·주주환원 등 ‘박차’

3중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 추진

키움증권은 여의도 키움증권본사에서 제2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는 주총 인사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방안의 선제적 실행’, ‘3중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미래 성장 기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대표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

행해 당사 기업가치가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면서 “약속드린 주주환원율 30% 이상을 지키며, 향후 3년간 평균 ROE 15%를 목표로 업계 최고의 자본효율성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업, 리스크관리, 감사 부문의 3중 체계로 리스크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더욱 고도화 시키겠다”라며 “플랫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증권사, IPO 주관 순위경쟁 ‘지각변동’

하나·신한투자증권, 1분기 선두 도약

하나증권, 에이피알·포스뱅크 참여 1218억 공모총액 기록… 1위 차지

신한투자증권, 12위 → 3위 올라 NH투자증권 등 선두 재탈환 노력

올들어 기업공개(IPO) 주관 순위 경쟁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하위권에 머물렀던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1분기 대어급 IPO를 주관하며 상위권으로 올라서는 등 증권사 간 순위바뀔 가능성이 거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IPO 상장 주관사 공모총액은 약 5678억원이다. 지난해 1802억원의 공모총액으로 8위에 머물렀던 하나증권은 올 1분기에 에이피알(947억5000만원)과 포스뱅크(270억원)의 IPO에 각각 공동주관과 대표 주관사로 참여하면서 1218억원의 공모총액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 하나증권은 스펙 시장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사피엔반도체와 레이저유타의 스펙 소멸 합병을 통해 코스닥 입성을 도왔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1분기에 이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전통 투자은행(IB) 부문에 주력한 결과”라며 “계속해서 대어급 기업들의 상장을 주관하며 대외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고, 스펙 합병의 경우에도 현재 3개 기업이 심사 중에 있어 업계 선두권을 지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공모총액 549억원으로 12위를 기록한 신한투자증권은 948억원을 달성하며 3위로 올라섰다. 신한투



하나증권 본사 전경. /하나증권

자증권도 에이피알 상장을 주관했다. 지난해 주관 실적 1위에 자리했던 NH투자증권은 HB인베스트먼트, 케이웨더, 케이엔알시스템, 오상헬스케어, 엔젤로보틱스 등을 주관, 1098억원의 공모총액으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위, 3위였던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에 635억원과 600억원의 공모총액을 기록해 4, 5위로 밀렸다.

앞으로 1분기에 밀렸던 주요 증권사들이 선두권 재탈환을 노리고 있어 순위 변동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3조원대 몸값이 예상되는 HD현대마린솔루션의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는 데다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 역시 조단위 기업 상장 주관에 나선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



신한투자증권 본사 전경. /신한투자증권

블리카의 상장 대표 주관사로 선정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상장 후 예상 시총이 12조~16조원에 육박해 IPO 최대어로 손꼽히고 있다. 이밖에도 미래에셋증권은 SSG닷컴과 올리브영의 대표 주관사로 IPO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은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대표 주관을 담당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상장 재도전을 선언한 시가총액 6조원대 규모 케이뱅크의 상장을 주관하는 한편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몸값이 최대 3조원까지 거론되고 있는 게임사 시프트업의 대표 주관을 맡았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올해도 부동산 PF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증권사들이 전통 IB 부문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IPO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금감원 압박에 홍콩H지수 자율배상 움직임

금감원, 내주 감사의견서 발송 예정 銀, 이보다 한발 앞서 대책 마련 모습 신속 이행 시 제재 경감 발표 영향

은행들이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자율배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배임 우려에도 시중은행들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압박이 주요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감사의견서를 받기 전임에도 자율 배상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금감원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판매사에 보낼 감사의견서는 다음 주 중 발송될 예정이지만, 은행권은 이보다 한발 앞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22일 이사회를 열고 제일 먼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관련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판매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은행권 판매사들 중 판매 금액이 가장 작다.

이어 하나은행도 27일 같은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나은행의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0억원이다. 이중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해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한 11인의 전문가로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해 배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머지 은행들도 속속 이사회를 열

고 자율 배상안 수용 여부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28일에는 NH농협은행·SC제일은행이, 29일에는 신한은행이 은행별로 이사회를 열고 배상안 수용 여부를 논한다.

비공식 이사 간담회를 열었지만 자율 배상에 대한 최종 결의에는 이르지 못했던 KB국민은행도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안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전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판매한 ELS 계좌만 8만개가 넘고, 판매액도 약 5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자율 배상 결의 여부 주목되는 은행 중 하나다.

이 같은 은행권의 움직임은 신속한 자율 배상을 이행하는 은행에 대해 제재를 경감해줄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들은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홍콩H지수 ELS 관련 금융사가 자율 배상안을 시행하면 감경 사유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zelkova@